

헌신의 달
선교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헌신

자기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rch 27,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9번 - 시편 32편 찬 송 / 369장 -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통일찬송 487장)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죄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410장 - 하나님의 진리 등대 (통일찬송 276장) 찬 송 / 320장 - 나의 죄를 정케하시 (통일찬송 350장) 봉 헌 / 김훈태 집사, 유동숙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 누가복음 16:1-13 불의한 청지기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484장 - 내 맘의 소망 되소서 (통일찬송 533장)
살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2:6-7

건강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3월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헌신의 달”** 이었습니다.
 4월은 **“부활과 소망의 달”** 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말씀과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시다.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와 더 많은 나눔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을 받으십시오.
 -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 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사순절 새벽집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말씀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을 힘차게 따라갑시다.
 - 감사와 은혜의 예배** 펜데믹 가운데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납시다.
 - 연합예배** 종려주일(4/10)은 Wilmett의 **뉴비전교회**에서 12:00에 주일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기도운동** 사순절 새벽예배와 개인 경건의 시간의 기도운동.
 -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 3. 4월의 사역 - 사순절(3/2-4/14) 선교주일(3/27) 만남과 나눔 주간(3/27-4/2)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4/3-4/9) 종려주일(4/10, 연합예배)
 고난 주간(4/10-4/16) 부활주일(4/17) 소금과 빛 된 주간(4/17-23)
 ♥ 3월 생일축하 ♥ 김성배(2) 김윤경(11) 장경미(22)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3/27	4/3	4/10	4/17
주일예배기도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3/27	4/3	4/10	4/17
주일헌금위원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최선운집사	
	3월	4월		
주일안내위원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 답게 살기** / 누가복음 14:15-27

21세기 미국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더 이상 편할 수 없다. 반면, 기독교 역사 내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살았다. 위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풍족한 환경에 사는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천국잔치를 사모하는 대신 세상의 즐거운 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큰 문제이다. 마치 새로 산 밭 때문에, 새로 산 다섯 마리 소 때문에, 새롭게 꾸린 가정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였다. 혹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지 않는지 돌아볼 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잔치 초청에 건성으로 응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빨리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따라서, 이제 남은 인생을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답게 살자. 그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며 그 천국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릴 때,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자.

불의한 청지기 / 누가복음 16:15-13

계으르고 불충한 청지기

1.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 해고를 당한다.

2. 해고 직전에 자신의 내일을 준비한다.

3. 주인에게 큰 빛을 진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빛을 지의로 탐감한다.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자.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맡은 사명에 충성하자.

내일과 마지막을 실질적으로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자.

불의한 청지기 / 누기복음 16:15-13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게으르고 충성되지 않아 주인의 재산을 허비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를 해고하려 한다. 이 때,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그들의 빚을 많이 탕감한다. 큰 빚을 탕감받은 이들은 청지기에게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입었으니 청지기가 해고돼 갈 곳이 없을 때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불충한 청지기는 해고되기 직전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손을 쓴 것이다. 참으로 약삭빠른 청지기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지혜로워야 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악한 청지기 만도 못하기 때문이다. 악한 청지기는 직면한 종말을 '나름의' 지혜로 대비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반면, 정작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종말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도 분명히 알고는 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 예수께 칭찬들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나?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고 있나? 예수님은 악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앞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책망이 들리지 않는가.

이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이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했다.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정신을 차렸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흔히 듣고 말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예비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 원하실 뿐이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 땅의 썩어 없어질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모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올바른 청지기된 성도의 모습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해야 할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자.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소망하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며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하루 24시간 쭉 흘러가는 시간이다. 카이로스는 직면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 은혜의 시간과 같이 무언가와 직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크로노스의 시간만 흘러가게 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 시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야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면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란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빼두지 않으면 우리 시간 관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입는 시간》을 쓴 켄 시계마츠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고 한다. 즉, 세상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살아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균형’이다. 균형 잡힌 먹거리, 균형 잡힌 쉼,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 일과 여가의 균형 등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웰 밸런스, 워라벨’ 같은 말들이 익숙하게 들리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취미를 갖고 좋은 쉼을 누리며 여가를 즐기는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모든 순간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을 알 때 다른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간을 지배해야 한다.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끌려다니는 시간 외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바라봐야 한다. 무언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균형 잡힌 삶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자.

따라서 생활수칙을 세우는 목적과 원칙도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일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 생활수칙이란 단순히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에는 균형이란 게 하나도 없으셨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 오로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밖에 없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누리고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나누어서 균형 있게 사용하느냐가 내 인생 시간표의 핵심이 아니다. 생활수칙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느냐에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에게 시간 관리의 의미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큐티를 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아침을 먹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자기 계발을 위해 책을 읽고, 체력을 위해 운동하겠다고 하는 시간표 빈칸 채우기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를 잡고 영적인 일에 핵심을 두고 시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이다. 물질만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니,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생활 리듬을 가져라. 세상에서 살지만,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매일의 시간표를 세밀하게 체크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자신의 스케줄을 관리하라.

자신의 영성을 매번 '돌아오는 탕자'의 이야기로 만들지 말라. 특별한 집회나 예배 혹은 단기 선교여행 때는 큰 은혜를 받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 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신앙의 연수만 늘릴 수는 없다.

홍민기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게 행복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5-16절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헌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